

2013년 동남아 주요국의 임금 인상 원인과 시사점

신민금 신흥지역연구센터 동남아팀 연구원 (mgshin@kiep.go.kr, Tel: 3460-1169)

이재호 신흥지역연구센터 동남아팀 전문연구원 (jhlee@kiep.go.kr, Tel: 3460-1134)



차 례 ●●●

1. 배경
2. 최근 임금 인상 현황 및 주요 원인
3. 파급효과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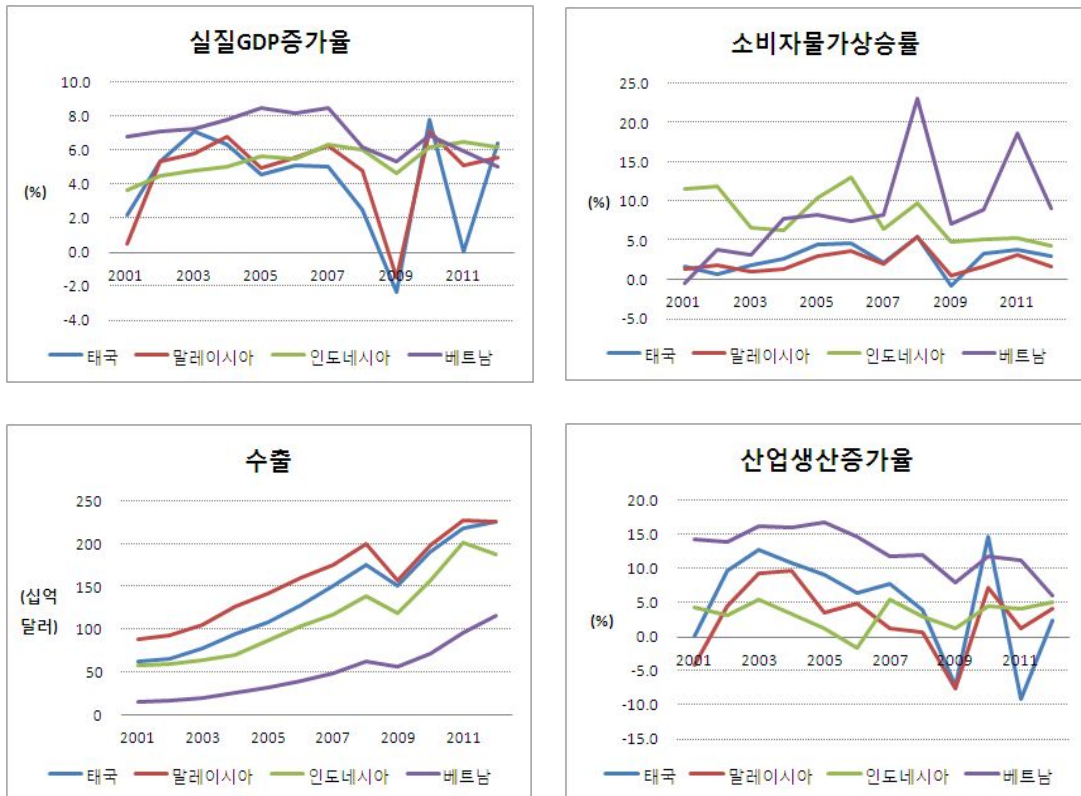
주요 내용 ●●●

- ▶ 세계경제가 혼미한 상황에도 동남아 주요국이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냄에 따라 한국기업의 동남아 진출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최근 이 지역의 임금이 대폭 올라 현지 사업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동남아 주요국의 경제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물가도 안정되는 등 호조 양상을 보이고 있어 한국 기업들은 내수시장 확보, 생산네트워크 확대 차원에서 동남아 국가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음.
 - 하지만 최근 동남아 지역의 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현지 경영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동남아 지역에 진출한 기업 및 향후 진출 검토 중인 기업들의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 ▶ 동남아 주요국의 2013년 최저임금이 정치적 동기, 노동계의 임금인상 요구, 인플레이션 반영 등으로 인해 크게 인상되어 현지 제조업체들의 생산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동남아 주요 4개국(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의 전년대비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대 41%로 매우 높게 나타남.
 - 국가별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배경을 보면, 인도네시아의 경우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고, 태국의 경우 잉락 총리의 2011년 총선 공약을 이행한 것임.
 - 베트남의 임금 인상은 높은 물가상승률에 기인한 조치로 분석되며, 말레이시아의 최저임금제 시행은 집권당의 총선 재선 및 중진국 함정 극복을 위한 정책적 시도로 볼 수 있음.
- ▶ 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비용 상승 부담은 노동집약산업에서 클 것으로 전망되나, 중장기적으로는 업종을 막론하고 동남아에 진출한 기업들의 사업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바, 현지 기 진출 기업 혹은 진출 고려중인 기업들은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노동집약적 산업 부문에 진출한 기업은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임금이 낮은 지역 혹은 미얀마, 캄보디아 등 주변 신흥국으로 생산시설 이전을 검토할 수 있으나, 이들 저임금 지역의 경우 전력교통통신 등 인프라가 열악한 점과 시설 이전에 따른 기회비용도 감안해야 할 것임.
 - 저임금 지역으로의 생산시설 이전 이외에도 단계적인 인력 감축, 숙련인력 비중 확대, 자동화 설비 확충 등 생산성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 배경

- 한국기업들의 주요 투자대상국인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주요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가 침체된 상황에도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해 왔으며, 거시경제적 안정성도 향상되었음.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대외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2012년 동남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은 태국 6.4%, 인도네시아 6.2%, 말레이시아 5.6%, 베트남 5.0%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함.
- 2012년 소비자물가상승률 또한 베트남이 18.7% → 9.1%, 말레이시아가 3.2% → 1.7%, 인도네시아가 5.4% → 4.3%, 태국이 3.8% → 3.0%로 전년대비 안정되면서 물가상승 우려가 감소함.
- 수출 실적은 2009년에 대외 충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감소한 바 있으나, 그 이후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음.
- 동남아 주요국의 산업생산증가율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일시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나, 2012년에는 모두 양의 증가율을 나타냄.
- o 태국의 경우 2009년 이외에도 2011년 대홍수로 인해 제조업 생산시설에 큰 피해가 발생해 산업생산증가율이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바 있으나 이후 빠른 속도로 회복함.

그림 1. 동남아 주요국의 거시경제지표(2001~12년)



자료: EIU, Global Insight.

- 동남아 주요국 경제가 호조 양상을 띠며 따라 생산비용 절감, 내수시장 확보 차원에서 한국기업의 동남아 진출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최근 임금 인상으로 인해 현지 경영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높은 성장 잠재력으로 동남아 국가들이 주요 신흥시장으로 주목받으면서 내수시장 진출 및 중국을 대체할 생산기지 확보 차원에서 한국기업들의 동남아 진출이 크게 증가함.
- 2010~12년 투자금액 기준, ASEAN 10개국은 미국과 중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투자대상 지역으로 부상하였으며, 이 지역에 대한 투자 규모는 약 136억 달러로, 한국의 대세계 투자 가운데 약 18%에 달함.¹⁾
 - o 같은 기간 한국의 대미국 투자금액은 약 131억 달러, 대중국 투자금액은 약 106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하지만 최근 동남아 주요국의 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현지 사업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동남아 지역에 진출한 기업 혹은 향후 진출을 고려중인 기업들의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본고에서는 동남아 주요 4개국(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의 최근 임금 인상 현황 및 배경을 분석하여 현지 기진출 기업 및 투자 고려중인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최근 임금 인상 현황 및 주요 원인

- 최근 동남아 주요국의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현지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생산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2013년 국가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지역이 약 44%, 태국이 약 35%, 베트남이 약 17% 수준으로 인상되었음.
- 말레이시아는 2013년에 최저임금제를 최초로 시행하였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기존에 비해 어느 정도 상승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우나, 현지 주요 언론들은 저임 노동력에 의존하는 제조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함.
- 이러한 높은 임금 인상의 원인은 국가별로 정치적 동기, 노동계의 요구 및 물가상승분 반영 등 다양한 형태로 분석됨.
- 이번 최저임금 인상·도입 배경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인도네시아는 노동계의 임금 인상 요구를 수용한 것이고, 태국은 잉락 현 총리의 총선 공약을 실천한 것임.

1) 한국수출입은행(<http://www.koreaexim.go.kr>). 2010~12년 투자금액 기준, 한국의 대동남아 직접투자는 국가별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순으로 많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대한 투자 규모는 각각 약 31억 달러, 약 28억 달러에 달함.

- 베트남의 경우 두 자릿수 이상의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임금을 대폭 인상하였으며, 말레이시아는 2013년 상반기에 실시 예정인 총선에 대비하여 집권당의 지지층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진국 합정을 극복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 분석됨.

표 1. 동남아 주요국의 최저임금 인상·도입 현황 및 원인

국가(도시)	통화 ¹⁾	2013년 월 최저임금	전년대비 인상률	인상 원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루피아	220만	44%	노동계 요구 수용
	달러	227		
태국 ²⁾	바트	6,000	35%	총선 공약 실천
	달러	200		
베트남	동	165만~235만	17%	높은 물가상승률 대응
	달러	79~113		
말레이시아	링깃	800~900	-	집권당의 2013년 총선 대비 전략, 중진국 합정 극복
	달러	263~296		

주: 1) 현지 통화는 2013년 4월 15일 외환은행 고시 기준(1달러당 9,710.09루피아, 29.04바트, 20,840.74동, 3.04링깃)을 바탕으로 필자가 달러 환산.

2) 태국의 최저임금제도는 월급이 아닌 일일 기준(300바트/일)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월급 기준(주 5일, 4주 근무)으로 계산하면 약 6,000바트에 달함.

자료: Wall Street Journal(2012), "Southeast Asia at Crossroads on Wages"(December 5); KPMG(2012), Labour: Increase of Minimum Wages by Geographical Location from 1 January 2013; Amcham Vietnam(<http://www.amchamvietnam.com>)을 참고하여 필자가 재구성.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정부는 2013년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44% 가량 대폭 인상하였는데, 이는 노동계의 임금 인상 요구를 수용한 것임.

- 자카르타 주정부는 제조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수도 자카르타의 2013년 월 최저임금을 153만 루피아(약 157달러)에서 220만 루피아(약 227달러)로 약 44% 인상하였음.
- 인도네시아에서는 최근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시위, 파업 등이 잇달아 일어났는데, 자카르타 지역의 최저임금 인상은 이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분석됨.
- 이에 자카르타 주정부는 노동계의 임금 인상 요구를 수용해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였으나 노동계의 요구사항이 온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며, 노·사·정 간의 갈등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음.
- 2012년 10월에는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임금 인상, 근로자 처우 개선, 파견직 근로자 채용 중단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파업이 벌어졌으며, 해당 파업에 200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주요 생산시설에서 조업이 중단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음.²⁾

■ 잉락 현 정부는 최근 태국 전역에 최저임금 인상 조치를 시행하였는데, 이는 잉락 총리의 2011년 총선 공약 이행에 따른 것으로 알려짐.

2) Ben Bland(2012), "Indonesian National Strike Shuts Factories," *Financial Times*. (October 3)

- 태국정부는 2012년 4월 방콕을 포함한 수도권 7개 주의 일일 최저임금을 300바트(약 10달러)로 인상한 데 이어 2013년 1월에는 이를 태국 전역으로 확대하여 일일 최저임금이 기존에 비해 평균 35% 상승함.
- 태국의 기존 일일 최저임금은 도시지역이 약 221바트(약 7.6달러), 농촌지역이 약 159바트(약 5.5달러)로 현행 300바트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음.
- 태국정부가 일일 최저임금을 300바트로 상향 조정한 것은 잉락 총리의 총선 공약을 실천한 것으로, 잉락 정부의 최저임금 300바트 공약 이행은 서민층을 주된 지지기반으로 하는 집권 프어타이당(Pheu Thai Party)의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으나, 내수 활성화와 소득수준 향상이라는 여당의 정책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 최근 베트남의 임금 인상은 노동계의 시위, 파업 등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정책적 조치인 것으로 분석됨.

- 베트남의 2013년 민간부문 월 최저임금은 4개 지역별로 165만 동(약 79달러)에서 235만 동(약 113달러)으로 전년대비 평균 17% 상승하였음.
- 베트남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8년 23.1%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나타낸 이래 이보다는 안정되었으나 2011년 18.7%, 2012년 9.1%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임.
-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높은 인플레이션 수준을 감안해 매년 최저임금을 일정 수준 인상해왔으며, 2012년 물가 상승률이 한 자릿수로 하락하였으나 임금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함.

표 2. 베트남의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률

구분	세부 지역	최저임금		전년대비 인상률
		2012년	2013년	
1 지역	호찌민시, 하노이시, 하이퐁시의 도심 및 일부 외곽지역, 동나이성, 빈즈엉성, 바리어붕따우성 내 일부 지역	200만 동 (약 96달러)	235만 동 (약 113달러)	17.5%
2 지역	호찌민시, 하노이시, 하이퐁시 내 1 지역에 미포함된 지역, 다낭시, 빈즈엉성, 까마우성, 후에성 등 내 일부 지역	178만 동 (약 85달러)	210만 동 (약 101달러)	18.0%
3 지역	하이즈엉성, 빈프억성, 쩡닌성, 박닌성, 박장성 등 내 일부 지역	155만 동 (약 74달러)	180만 동 (약 86달러)	16.1%
4 지역	1, 2, 3 지역에 미포함된 지역	140만 동 (약 67달러)	165만 동 (약 79달러)	17.9%

주: 베트남 동화는 2013년 4월 15일 외환은행 고시 기준을 바탕으로 필자가 달러 환산(1달러당 20,840.74동).

자료: KPMG(2012), *Labour: Increase of Minimum Wages by Geographical Location from 1 January 2013*, Amcham Vietnam (<http://www.amchamvietnam.com>)을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동남아 주요국과 달리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3년에 최초로 최저임금제를 시행함.

- 대다수의 동남아 국가들은 이미 최저임금제를 채택해 왔으나 말레이시아는 2012년에 최초로 최저임금 관련 제도적 장치를 마련, 2013년 1월부터 최저임금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였음.

- 2013년 1월부터 시행한 최저임금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월 최저임금은 수도 쿠알라룸푸르가 위치한 말레이반도가 900링깃(약 296달러), 사바주, 사라왁주, 라부안은 800링깃(약 263달러)임.³⁾
- 2013년 초 최저임금제 시행 시에는 근로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었음.
- 그러나 다수의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한 중소기업들의 내·외국인 일괄 최저임금제 채택을 보류해 달라는 요청이 잇따르자 말레이시아 국가임금협의회(National Wages Consultative Council)는 이들 중소기업이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2014년 1월부터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도록 조치하였음.⁴⁾
- 2013년에 최초로 도입된 말레이시아의 최저임금 수준은 기존 저임 임금 수준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말레이시아 경영자협회에 따르면 사바주, 사라왁주에 위치한 기업들의 경우 임금 부담이 50% 이상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됨.⁵⁾

■ 말레이시아 정부의 최저임금제 도입은 2013년 5월에 실시 예정인 총선에서 집권당의 승리가 주된 이유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빈곤 감소 및 생산성 향상으로 2020년까지 중진국 함정을 탈피하고자 하는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짐.

- 말레이시아에는 월소득 700링깃(약 230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노동자 수가 320만 명(전체 인구의 약 11%)에 달하는데, 집권여당은 최저임금제 도입을 통해 이들의 소득 수준을 높여 총선 지지층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짐.
- 말레이시아 정부는 최저임금제 도입을 통해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고용 비율이 높은 노동집약적 산업 비중을 줄이고, 소득 수준 향상과 내수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중진국 함정을 탈피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도를 밝힌 바 있음.

표 3. 말레이시아 최저임금제 개요

시기	주요 내용	세부 내용
2013. 1. 1	최저임금제 시행	최저임금: 말레이반도 900링깃(약 296달러) /사바주, 사라왁주, 라부안 800링깃(약 263달러) ※ 중소기업이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2014. 1. 1	최저임금제 확대 시행	중소기업 중사 외국인 근로자까지 적용대상 확대

자료: 현지 언론 및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3) 최저임금제는 근로자 6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적용됨.

4) Zazali Musa(2013), "Adapt to Minimum Wage, SMEs Advised," *The Star*. (March 25)

5) *BBC News*(2012), "Malaysia Introduces Minimum Wage for the First Time." (May 1)

3. 파급효과 및 시사점

■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동남아 지역 기업들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면서 폐업 및 해고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oard)의 발표에 따르면, 방콕을 포함한 7개 주의 최저임금이 인상된 후인 2012년도 4/4분기에 태국 내 폐업건수가 약 7,200건을 기록했는데, 이는 대홍수가 발생했던 2011년 4/4분기 대비 약 27% 증가한 수치임.
- 태국의 일일 최저임금 300바트 도입으로 임금 상승 부담이 대기업은 0.57%, 영세기업은 최대 17.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바 있음.⁶⁾
- 인도네시아, 베트남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섬유·봉제업, 의류제조업 등 노동집약 제조업 부문에서 해고 및 폐업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말레이시아는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제 도입이 1년 유예되기는 했지만 임금인상으로 인한 경영여건 악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주요국의 최저임금 인상 여파는 시일이 지남에 따라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말레이시아의 경우 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도입 시기인 2014년에 국내 근로자의 최저임금까지 동반 상승할 경우 기업들의 임금 상승 부담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인도네시아의 경우 수도 자카르타 지역의 최저임금 인상 이후 지방소재 노동계도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수도권의 임금 인상 여파가 지방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 상승 부담은 단기적으로 노동집약 산업에서 클 것으로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는 업종을 막론하고 동남아에 진출한 기업들의 경영환경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투자 진출은 전통적으로 섬유·의류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비중이 높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됨.
- 반면 태국, 말레이시아의 경우 한국기업들의 노동집약 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낮고 화학, 금속 등 자본 및 기술집약 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충격이 적을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동남아 주요국의 임금인상 기조는 업종을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생산비용 부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는바, 동남아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대응이 시급함.

6) Yuvejwattana and Chen(2013), "Thai Bankruptcies Rise as Minimum Wage Rolls Out: Southeast Asia," *Bloomberg*. (February 26)

- 동남아 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임금인상 기조에 대응해 저임금 지역으로의 생산시설 이전, 생산성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섬유·봉제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 부문에 진출한 기업은 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교적 임금 수준이 낮은 지역 혹은 주변 신흥국(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으로 생산시설 이전을 고려할 수 있으나, 저임금 지역의 경우 대체로 전력·교통·통신 등 인프라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점과 시설 이전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저임금 지역으로의 생산시설 이전 이외에도 단계적인 인력 감축, 숙련인력 비중 확대, 자동화 설비 확충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KIEP**